

화성시
도서관 소식지

풍경

제45호

두근두근
나눔화성
2019. 04. 2019년

HWASEONG CITY
CULTURAL FOUNDATION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 공공도서관

태안도서관 · 삼괴도서관 · 병점도서관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 봉담도서관

동지나래어린이도서관 · 동탄북합문화센터도서관

송산도서관 · 정남도서관 · 진안도서관

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 · 동탄다원이음터도서관

송린이음터도서관 · 동탄목동이음터도서관 · 남양도서관

편집위원 서은화, 김보라, 최보영, 최유진, 이해인, 최미선, 이호성,

안소영, 이정인, 김준형, 최지연, 유정미

발행일 2021년 4월 13일

발행처 화성시문화재단

편집 도서관기획홍보팀, 도서출판인쇄마을 & J.Design

발행인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홈페이지 <http://www.hscitylib.or.kr>

책, 사람, 마을을 품는
화성시 공공도서관

도서관의 속도

06 내가 보고 싶은 풍경은

08 다시 열린 삼괴,
앞으로의 삼괴

도서관의 온도

14 나를 바꾼 책, 나를 바꾼 도서관
- 책을 가까이 하면 책이 된다, 나태주 시인

18 사서, 요즘 취미
혹시 당근이신가요?

20 도서관에서 있었던 일

- 코로나19 아카이브,
시민의 감정을 기록하다
- 송림이음터도서관,
너의 꿈에 날개를 달아줄게
- 남양도서관,
우리가족 주말 행복 놀이터



도서관의 시선

- 30 **도서관의 책들**
도서관에 비치되거나,
사라지거나
- 34 **사서특화칼럼**
확률이 뭐길래
- 38 **사서정보플렉스**
화성여지도
화성 속 공원 산책
- 41 **사서의 북컬렉션**

도서관의 뉴스

- 46 **팟캐스트 북재통 시즌2**
당신을 위로하는 작은 심포,
도서관주간 행사
- 47 **주간북레터 구독이벤트**
남양도서관 초등교과꾸러미

독자참여 및 안내

- 48 **가로세로 낱말퀴즈-역사편**
- 50 **독자후기 코너**
- 51 **도서관 이용안내**

CONTENTS

Volume 45_SPRING 2021



06 내가 보고 싶은 풍경은

08 다시 열린 삼괴, 앞으로의 삼괴

서관의 속도

내가 보고 싶은 풍경은

올해의 풍경,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2021년 올해 도서관 소식지 풍경은 45호 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약 10여 년간 풍경이 발간되어 시민들을 만나 온 것이죠. 제작 전, 우리가 풍경을 잘 만들어 왔는지에 대해 독자들의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풍경을 어떻게 보셨는지 또 앞으로 어떤 모습의 풍경을 보고 싶어 하시는지 소중한 독자의 의견을 반영해, 늘 화성시 도서관을 아껴주시는 이용자 분들 옆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대상으로 풍경에 대한 의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잘 하고 있다고 칭찬도 해주셨고, 아쉬운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어요. 모두 다 소중한 의견이라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45호부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달라진 풍경의 모습을 소개해드립니다.

”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

한 손에 들어가는 작은 사이즈로, 어디서나 부담없이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혹은 가방에 쏙 넣어 다닐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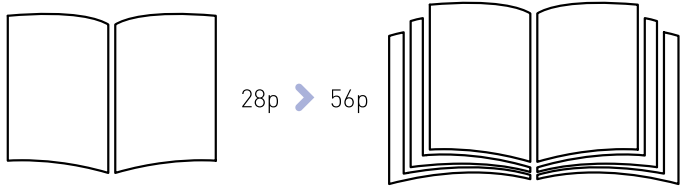


B5 > A5



더욱 풍성한 페이지

‘페이지가 짧다’, ‘기사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페이지 수를 대폭 늘렸습니다.



화성시의 특색이 잘 살아나는 이야기

도서관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인터뷰, 화성시 지역의 오래된 풍경이나 일상을 담은 사진, 화성시 시민 혹은 지역 작가가 쓴 글 등이 수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순차적으로 반영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호부터 화성의 숨은 명소를 소개하는 ‘화성여지도’를 신설하였어요.

시기와 대상별 콘텐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서관 이용법, 독서법, 추천도서 등 시기에 알맞은 기사와 어린이, 청소년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실을 예정입니다. 또한 연령, 분야, 상황에 맞는 콘셉트가 있는 도서 추천이나 감성적인 시나 글귀도 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소중한 의견 차례차례 반영하여 ‘내가 보고 싶은 풍경’으로 시민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매 호 마지막 ‘독자의견코너’를 통해 꾸준히 독자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다시 열린 삼괴, 앞으로의 삼괴

– 삼괴도서관, 리모델링 후 재개관하다



삼괴도서관

삼괴도서관은 지난 2004년에 개관한 화성시 서남부지역의 대표적 문화공간이다. 자연친화적인 도서관의 입지를 고려하여 자연·생태·환경을 도서관의 특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 등으로 시민들의 배움과 소통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굳건히 해왔다. 하지만 개관 이후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노후화된 모습은 모두에게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런 삼괴도서관이 2020년 9월, 개방형 복합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리모델링을 시작했다. 약 6개월의 리모델링을 끝마치고 지난 2월 16일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도서관의 속도



리모델링 전 어린이자료실



리모델링 후 어린이자료실

삼피도서관의 어제

리모델링 이전의 삼피도서관은 요즘 트렌드와는 거리가 먼, 다소 답답한 느낌의 도서관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노후화된 가구들과 많은 책들을 꽂아두기 위해 뽁뽁하게 세워놓은 서가들은 도서관을 답답한 이미지로 만들었다.

그렇기에 리모델링의 방향은 명확했다. 넓고 답답한 이미지의 도서관이 아닌,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탁 트인 내부 인테리어와 트렌디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재탄생. 이러한 도서관을 목표로 삼피도서관은 더 나은 내일의 도서관이 되기 위해 시민들과의 짧은 안녕을 고했다.

다시 열린 삼피도서관

2020년 9월 리모델링을 시작한 삼피도서관은 지난 2021년 2월 16일, 약 6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시민들의 도서관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1층의 어린이자료실은 움직임이 많고 활동적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개방형 좌식으로 조성했다. 정숙만을 강요하는 도서관이 아닌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여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종합자료실은 폴딩 도어를 설치하여 도서관 로비와 바로 연결되게하여 개방형 카페와 같은 공간으로 조성했으며, 또한 도서관의 특화 주제인 자연·생태 특화 코너를 따로 조성하여 이용자들이 이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했다.



도서관 로비



새로워진 시설을 둘러보고 있는 서철모 시장

2층은 열람실과 휴게실의 노후 시설을 개선했다. 도서관의 낡은 실내 마감재, 가구, 서가 및 냉난방 시설을 교체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월 20일 삼귀도서관 리모델링 개관식에 참석한 서철모 화성시장은 “도서관은 이웃과 소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배움의 공간”이라며 “이곳 삼귀도서관 뿐만 아니라 모든 도서관이 모두가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공간,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되어 마을공동체의 느티나무와 같은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삼귀도서관의 내일

앞으로의 삼귀도서관은 이용자들이 머무르고 싶은 다시 찾고 싶은 도서관이 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기존에 운영하던 자연·생태 특화프로그램을 조금 더 보완하여 온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탐방프로그램으로 정착화시키려 준비 중이다. 새롭게 단장한 강당에서는 월별 ‘공연산책’과 연말 ‘삼귀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로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충족시켜줄 예정이다.

글 | 이호성(삼귀도서관 사서)

Volume 45_SPRING 2021



14 나를 바꾼 책, 나를 바꾼 도서관

18 사서, 요즘 취미

20 도서관에서 있었던 일

서관의 온도

도서관의 온도

연재 코너

'나를 바꾼 책, 나를 바꾼 도서관'



나태주(시인)

책은 가까이 읽히는 책이 된다

나더러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물건을 고르라면 '책'이다. 그냥 책이다. 어려서부터 책이 좋았다. 그냥 좋았다. 그렇다고 우리 집이 문화적으로 수준 높은 집이라던가 책이 많은 집이란 것은 아니다. 전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집이었다. 집안에 책이 있었다면 아버지가 보시던 낡은 '아리랑' 잡지가 몇 권 방구석 어딘가에 덩굴 뿐이었고 초등학교 다닐 때 살던 외갓집에도 책이란 것은 별로 없었다. 외할머니가 보시던 옛날이야기 책, 그것도 시장에서 파는 '육전소설'이 몇 권 선반 위에 놓여 있었을 뿐이다.

나에게 책에 대한 매력을 알게 해준 것은 놀랍게도 만화책이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책이 매우 귀하던 시절.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과서조차 우리의 힘 아닌 운크라(국제연합한국재단)라는 이름의 유엔 단체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시절이다. 아이들이 보던 잡지로는 '새벗'이란 잡지가 유일했고 박기당이란 만화가가 그린 만화가 유행했다. 박기당의 만화는 그냥 만화가 아니라 교양서적이었고 역사책이었고 또 동화책 대용이었다. 하지만 그런 만화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었던 건 또 아니다. 주로 친구들과한테서 빌려서 읽었다.

외할머니는 내가 교과서를 읽지 않고 만화책을 주로 읽는 것을 걱정하셨다. 그래서 나는 만화책을 들고 나와 남의 집 울타리 밑에 쪼그리고 앉아 날이 저물어 글자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읽곤 했다. 아마도 책 읽는 즐거움을 느낀 건 그렇게 읽은 만화책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만화책에 대한 호감과 정도는 나중 에 아들이아이한테도 마찬가지로 전승되었다. 아이가 책과 별로 가깝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았다. 그렇게 초등학교를 거쳐 중학교에 다닐 때 아들이아이 만화책을 읽기 시작했다. 읽어도 아주 많이 읽었다. 만화책에 빠진 아들이아이를 보고 아내가 걱정했지만 나는 그냥 두라고 말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아이의 만화책 읽기는 다른 책 읽기로 번져나갔다. 어떤 날은 밤을 새워가면서 책을 읽었다. 저절로 학교 성적이 좋아지고 아이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가끔 말하곤 한다. “만화책도 책이다. 만화책이라도 많이 읽으면 된다.” 그건 그렇다. 만화책이라도 많이 읽다 보면 책이 좋다는 걸 알게 되고 또 책이 좋다는 걸 알게 되면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다. 문제는 좋아하는 마음이다. 책을 좋아한다는 것, 바로 그 마음.

나는 책이 많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기에 지금도 책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 그 궁끼(窮氣)가 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끌었다. 우리 집에서 가장 많은 물건은 단연코 책. 아내가 제일 힘든 것은 책이 차지하는 공간이 많아 집안이 텅없이 비좁다는 것일 터이다. 올해 나의 나이는 만으로 76세. 늙은 사람 가운데서도 늙은 사람. 하지만 지금도 나는 새로운 책을 산다. 옛날에는 서점에 직접 가서 책을 샀지만 지금은 온라인을 통해서 산다. 그냥 새로운 책을 사는 것이 기쁘다. 새로운 책을 방안에 두고 함께 지내는 것 자체가 기쁨이다.



모든 책을 다 읽는 건 아니다. 더러는 읽지 않고 그냥 쌓아두기도 한다. 그래도 책을 가까이하는 건 좋은 일이다. 책의 저자와 책의 이름만 읽는 것도 도움이 된다. 세상을 알고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나의 길이 되어주고 지향이 되어준다. 그렇게 책이란 것은 가깝게 하는 것만으로 좋은 것이고 도움이 된다. ‘근묵자흑(近墨者黑)’이란 말이 있다. ‘검은 먹을 가까이하면 검어진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나는 이 말을 응용하여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책을 가까이하면 책이 된다.’

과연 그건 그렇다. 나만 해도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하다 보니 글을 쓰는 사람이 되었고 책을 아주 많이 내는 사람이 되었다. 지금까지 내가 낸 책이 대략 150권, 문필생활 50년인데 한 해에 세 권씩 책을 낸 셈이다. 지난 해(2020년)에 낸 책만 해도 21권이다. 고마

운 일이기도 하고 미안한 일이기도 하다. 내가 지금껏 살면서 가장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미안하게 여기는 상대는 종이. 그리고 나무. 책이 종이로 되어 있고 종이는 또 나무에게서 왔음이다. 나아가 이것은 지구에게 아주 많은 빛을 진 일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나는 가능한 대로 좋은 글은 써야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책, 아름다운 책을 만들어야 한다. 언제쯤 그런 책을 쓸 것인가? 쓰고 써도 미흡한 나의 글, 내고 또 내도 모자란 나의 책. 그러다 보니 책의 권수가 그만 턱없이 늘고 말았다. 과연 글은 나에게 끝내 도달할 수 없는 처녀림이고 책은 또 그렇게 나에게 필요악인가! 이것은 내가 진정 살아서 풀어야 할 과제 중의 과제. 손가락에 지문이 사라질 정도로 책을 뒤져도 나의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책의 숲으로 가는 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태주 시인 소개

197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2007년 공주 장기초등학교 교장으로 오랜 교직생활을 마감했다. 대표적 시 ‘풀꽃’으로 유명하다. 현재 공주풀꽃문학관 시인이다.

- ★ 4월 도서관주간을 맞아 동탄북합문화센터도서관에서 나태주 시인의 ‘시로 물든 아름다운 삶’ 특강이 온라인(도서관 유튜브)으로 진행된다. 도서관 홈페이지(www.hscitylib.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혹시 당근이신가요?

혹시 당근이신가요?

어두운 골목길 낯선 사람이 검은 비닐 봉투를 들고 나타나 두리번거리며 다가와 “혹시 당근이신가요?”하고 물어본다면 밀수·마약신고 125번, 간첩신고 111번을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사람은 수상한 범죄자도, 간첩도 아닌 중고물품을 팔려고 나온 선량한 이웃 주민 이거든요.

반경 6km 이내의 동네 주민과 중고거래를 할 수 있는 이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은 쓸만한 물품을 쉽고 편하게 공유할 수 있게 해 줍니다.

허리가 맞지 않는 바지, 필요없는 게임기, 많이 남은 설날 선물 세트 등 다양한 물품이 주인을 찾아가갈 수 있게 합니다. 필자도 집에서 3년 묵은 먼지 쌓인 오래된 게임기 몇 개를 팔기 위해 중고거래를 이용했습니다. 중고 거래가 처음인지 불안해하는 아빠 손을 잡고 나온 아이는 게임기를 만져보더니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좋아했습니다. 나에게서 더 이상 쓸모없는 물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치가 있을 수 있구나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 책과 중고거래

우리가 사랑하는 책들도 중고시장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헌책방에서는 낡은 책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비싼 전공 서적을 사기 힘든 대학생들이 자주 찾기도 하고요, 출판사와 작가의 사정으로 절판된 책들이 모여있기도 합니다. 이제는 구할 수 없는 희귀 판본을 찾는 마니아들이 모여 헌책방 거리가 조성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대형서점이 운영하는 깔끔하고 멋진 인테리어의 중고서점에서도 누군가에게 쓰임이 다한 책들이 새로운 주인을 기다립니다.



환경에도 조그마한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 매너 상제	
😊 받은 매너 칭찬	
1. 친절하고 태도가 좋네요.	₩1.3
2. 열심히 팔려요.	₩1.3
3. 시간 약속을 잘 지켜요.	₩1.1
4. 상품상태가 심한 것 같네요.	₩1.1
5. 제가 있는 곳까지 와서 거래했어요.	₩1.1
6.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해요.	₩1.1
😊 받은 비매너	
받은 피드백이 없습니다.	

거래 매너는 확실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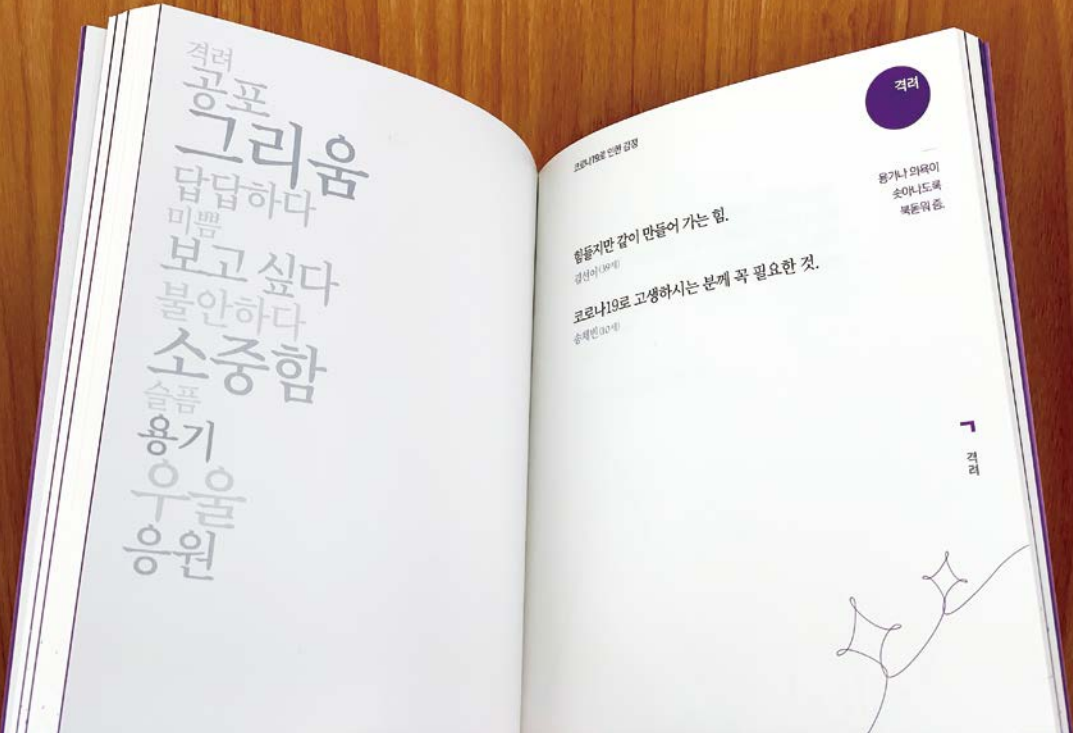
🍎 중고거래가 가져오는 녹색 이익

중고물품들은 작은 파손과 흠집, 색 벗겨짐이 있을 수 있지만 사용하기에는 큰 지장이 없는 물건들입니다. 이 물건들이 단순히 흥미를 잃어서, 자리만 차지하는 것 같아서, 새 물건을 사기 위해서 버려진다면 아깝지 않을까요?

물건을 새로 만들면서 사용되는 자원들과 새 물건을 사기 위해서 버려지는 물건들, 그리고 상품을 배송하기 위해 쓰이는 포장재들을 생각하면 중고거래는 저렴한 가격에 환경을 생각하는 합리적인 소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새 물건을 사기보다 우리 동네 누군가의 서랍장 속에서 잠들고 있을 중고물품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다가가서 말해보세요. 혹시 당근이신가요?

글 | 이정인(동탄목동이음터도서관 사서)



도서관에서 있었던 일

2020년 코로나19 아카이브, 시민의 감정을 기록하다

코로나19, 내 마음이 보이니?

2020년 8월부터 화성시문화재단 도서관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한가운데 곳곳이 오늘을 살아가는 화성시민의 감정과 생각을 듣고 기록하고자 시작한 「코로나19 아카이브」 사업,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코로나 시대를 지나온 우리들의 감정과 생각을 가득 담은 두 개의 기록물이 탄생하였다.



단어 사전

코로나19에 대한 '감정을 표현한 단어'를 수집하고, 개인마다 그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단어에 대한 개인적 의미'를 모아 정리하였다.

단어 사전에는 '사업소개', '단어 사전 사용설명서'와 수집된 감정단어 빅데이터로 만든 '단어구름', '시민이 선택한 단어 Ranking'을 수록하여 책의 이해를 도왔다.

단어 사전은 화성시립도서관 15개소에 등록· 비치 예정이며, 추후 열리는 화성시문화재단 도서관 '온라인 전시관'에서도 직접 확인해볼 수 있다.

타일 벽화 아트

코로나19에 대한 '감정을 표현한 작품(그림, 짧은 글)'을 수집하여, 타일로 굵고 꼼꼼히 붙여 밝고 화사한 분위기의 벽화로 완성했다. 위로, 희망, 기원의 메시지를 가득 담은 벽화는 보는 이의 마음도 환하게 밝힌다.

타일 벽화 아트는 태안도서관(경기도 화성시 화산중앙로 19) 야외 잔디광장에 조성되어 있다. 태안도서관을 방문할 예정이라면 타일 벽화 아트에 새겨진 시민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를 감상해 보기 바란다.



함께한 사람들

강은비 강은솔 강은을 국정민 권다는 권리안 권리호 권병국 권소는 권오혜 김가영 김나을 김리나 김이영 김민중 김보민 김유나 김윤석 김윤희 김은미 김열훈 김재민 김재원 김재을 김재은 김태은 나예진 노송하 민미양 민병화 박도영 박도을 박서연

박은선 박은정 박지을 박동석 배민규 배서을 배복숙 송복은 송선영 신서을 신이우 신계민 선은우 신지호 심은숙 양지우 양재우 유성환 유윤호 윤준혁 이경애 이다연 이미강 이미진 이성미 이수연 어인결 이 안 이윤희 이재원 이주연 이지영 이지우 이지윤 이하은 이혜영 이혜영 이희수 임승규 임승원 안효비 장말은 장하원 권태원 권오주 정별은 정연원 정은영 정하연 조아라 조정신 조현정 최가은 최귀남 최아연 최원모 최유정 최은영 최은우 최현숙 하세진 한담희 한성희 한지우 한진희 한에서 한혜정 홍재원

협성대학교 생활공간디자인학과
각계는 박은우 시윤해 송재지 최다민



참/여/자/소/감

책을 대출하러 갔다가 아이가 그린 하트와 내 글귀의 타일이 보였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 아이들과 읽으며 코로나 1년을 보냈습니다. 도서관이 있어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_송복순 님

코로나 때문에 집콕 생활하면서 단조로웠던 생활에 선물 같은 이벤트였습니다. 아이도 자신의 그림이 타일로 전시되어 엄청 신기해하고 좋아하네요._전효주 님

모두가 힘든 시기에 '나'만이 아닌 '함께' 이겨내고 있다는 생각에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_심은숙 님

코로나19 아카이브 담당자의 한마디

시민의 감정을 모은 “코로나19 단어 사전”과 “코로나19 타일 벽화 아트”를 보며 서로의 감정을 알아가고 공감하여 눈 앞에 닥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화성 시민들에게 깃들기를 바랍니다. 사업에 참여해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날들 속 당신은 괜찮으셨나요?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과 불안이 「코로나19 아카이브」 기록물을 통해
작게나마 해소되길 바랍니다.

글 | 최지연(도서관독서문화진흥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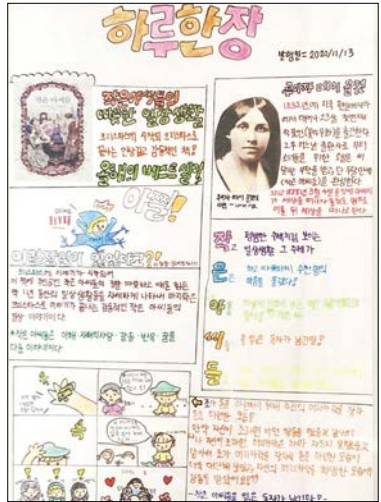
도서관에서 있었던 일

송린이음터도서관 '책날개' 사업

너의 꿈에 날개를 달아줄게

송린이음터도서관에서는 2020년 중학교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책날개 꾸러미를 선물했다.

'책날개 입학식'은 책 꾸러미를 선물하고 다양한 활동 지원을 통해 독서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송린중학교와 협업으로 진행하였다.



책날개 꾸러미는 에코백, 각인 책갈피, 도서 1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서는 사서와 송린중학교 국어 선생님이 함께 논의하여 청소년이 읽으면 좋을 7권의 도서 『작은 아씨들』,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 『시간을 파는 상점』, 『과학자의 서재』, 『식탁 위의 세계사』, 『과학콘서트』를 선정하였다.

또한 송린이음터도서관은 '책날개 입학식'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 학기 한 권 읽기'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학생들이 7권의 책 중 1권을 선택하여 10주 동안 읽고 책 내용을 바탕으로 '독서날개'라는 독서신문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작품들은 송린이음터 도서관 종합자료실에서 올 해 3월 한 달간 전시하였다.

'책날개 입학식'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책을 통해 호기심과 사고력을 키워 책과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송린이음터도서관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독서 기회가 줄어든 학생들 뿐 아니라 화성시민 모두가 책을 읽고 즐길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글 | 안소영(병점도서관 사서)

Family On Day

우리 가족 주말 행복 놀이터

이번 주말 도서관과 함께 신나는 체험프로그램 어때요?

매월 셋째주 토요일마다 남양도서관에서 '주말가족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주말가족프로그램'은 나쁜 주말에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도서관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 아직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1~3월 주말가족프로그램은 슬기로운 집콕프로그램으로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ZOOM)을 통한 수업으로 진행 되었어요.



슬기로운 집콕놀이

집콕의 시대,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만 하고 있지는 않나요?

부모님이 어렸을 적 맨몸으로도 할 수 있었던 놀이들을 함께 해보았어요.

풍선으로 배구하기, 계란판으로 탁구공 옮기기, 가족 얼굴 나눠서 그리기, 10문 10답으로 아이와 부모가 서로 알아가는 대화 나누기 등의 놀이를 하며 신나게 놀았어요.

주말가족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매달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는데, 무로하게 보낼 주말에 가족이 모여 함께 웃으며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어 즐거웠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좋았다는 의견과 몸으로 하는 놀이도 재미있었고,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특히 좋았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슬기로운 집콕요리

주말 가족 프로그램 두 번째, 슬기로운 집콕요리!!
 집콕으로 엄마들은 아이와 온 가족 삼시세끼 식사에 대한 부담감이 늘어 힘드시죠?

“오늘은 내가 요리사~” 아빠도 우리 아이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미니언즈와 펑수캐릭터주먹밥, 햄이 쿵! 쿵! 햄 빼먹는 재미에 만들어 보는 햄꽃김밥으로 주말 한 끼 해결해 보았어요. ‘백파더 : 요리를 멈추지 마!’ 보셨죠? 슬기로운 집콕요리도 동일하게 진행하였는데, 우리의 요리선생님은 잘못해도 망쳐도 혼내지 않아요. 왜냐면, 가족과 함께 하는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두 시간 동안 캐릭터주먹밥과 햄꽃김밥, 레몬청까지 진행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슬기로운 집콕보드와 도서관 숲에서 놀자

가족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보드게임이 빠지면 서운하죠? 3월은 세계 여러 음식에 대해 알아보고 미션 카드에 있는 그림을 보고 똑같은 음식의 그림을 찾아 손수건을 접으면서 Fold-it(폴드잇) 게임을 운영합니다. 간단한 게임이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말을 보낼 수 있었어요.

4월에는 도서관 숲에서 놀자로 봄꽃 향기 가득 맡으며 가족과 함께 자연체험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매달 셋째 주 토요일 도서관으로 가족과 함께 나들이 오세요~!!



글 | 유정미(남양도서관 사서)



30 사서의 시선, 도서관의 책들

34 사서특화칼럼, 확률이 뭐길래

38 사서정보플렉스, 화성여지도

41 사서의 북컬렉션

서관의 시선

도서관의 책들

(도서관에 비치되거나, 사라지거나)

도서관이란 공간에서 서가 속 책들은 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새로 채워지기도 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도, 조용히 사라지기도 한다.

책은 어떻게 비치되고, 사라지는 것일까.

서가에 책이 비치된다는 것

사서가 도서를 구매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정기적 도서 구입과 이용자의 희망 도서를 수시로 구입하는 방법이다.

정기도서 구입은 신간도서, 화제가 되는 도서, 서점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도서, 시리즈 등을 화성시 도서관 도서 구매 기준에 맞추어 심사하고 구매한다.

다른 방법인 희망도서 구입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읽고 싶은 책이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지 않을 때 혹은 이용자가 추천하지만 도서관에 없을 때 등 여러 가지의 이유로 도서관에 해당 도서를 비치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직접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이다.

도서관에서 원하는 도서를 가장 빨리 만나는 방법은 희망 도서를 신청하는 것이다. 대량의 도서를 납품받는 정기 구매보다 비교적 적은 권수를 선정하여 구매하기 때문이다.

화성시 도서관 희망도서의 경우 이용자가 신청을 하면 도서관의 비치기준*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게 되고, 도서 발주와 등록과정을 거쳐 서가에 비치된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서가 도서를 서가에서 배제(열람제한)하는 방식은 무엇이 있을까?

* 화성시 도서관은 ~한 도서는 구매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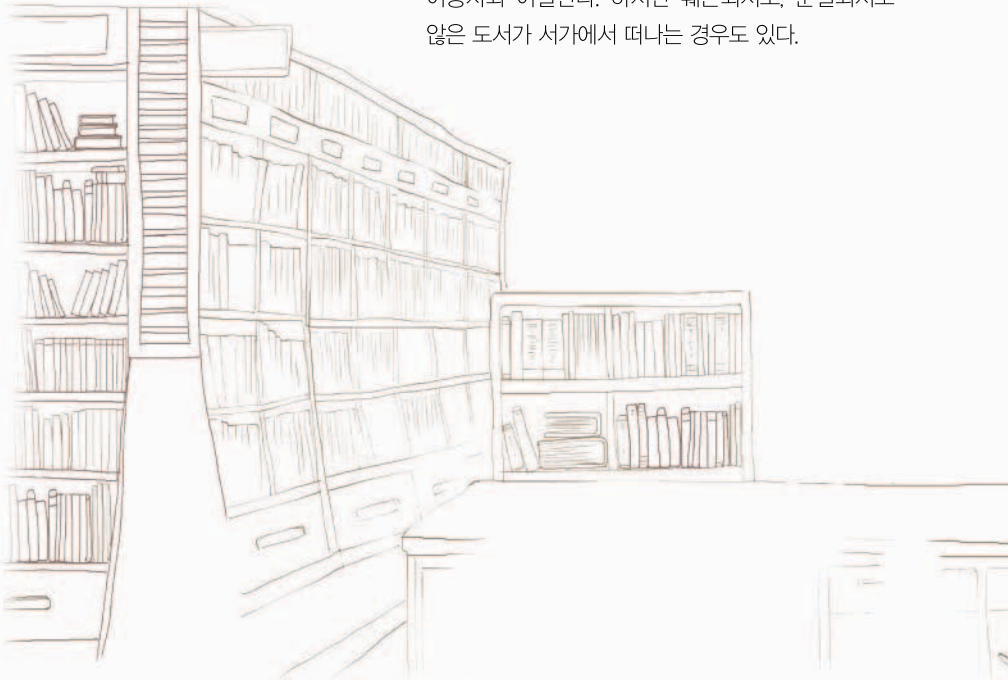
↓ 희망도서 제외 기준

- 도서 금액이 권당 50,000원이 초과하는 도서
- 자관에 소장되어 있거나 구입·정리 중인 도서, 신청 중복 도서
- 발행 연도가 5년 이상 경과된 도서 (단, 컴퓨터·과학 분야는 3년 이상 경과된 도서)
- 연감, 백서, 보고서, 참고도서 류
- 수험서, 학습서, 교재, 문제집 등(기본 개념 / 이론서 제외)
- 공공도서관의 성격과 상이한 심화전문 / 전공서적
- 정기간행물, 비도서 자료, 외국도서
- 3권을 초과하는 시리즈 또는 전집도서 (→ 정기도서구매로 반영)
- 청소년 정서에 바람직하지 않은 선정적인 도서
- 전문종교자료(개인 신앙 / 연구자료 등) 및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
- 영리목적 또는 상업적으로 신청된 동일 출판사의 도서
- 미출간도서(POD)·1인 출판도서 등 입수가 어려운 도서
- 자료 형태가 도서관 소장도서로 부적합한 도서 (스프링, 낱장자료(리플릿), 악보, 필사책, 컬러링북, 필기책 등)
- 기타 공공도서관에 적합하지 않은 도서(심의를 거쳐 논의)

서가에서
책이
사라진다는 것

서가에서 책이 사라지는 경우 간단하게는 분실, 파손부터 시작해서 모종의 이유로 열람 제한이 되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한 이용자가 도서관에 방문해 책을 찾는데, 그 책은 현재 서가에 없다. 누군가가 잘못 꽂았을 수도 있고 도난당했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도서검색PC를 이용해 해당 책을 검색했을 때 책이 있다고 나와도 실제로는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사서는 우선 전산 상으로 도서를 열람 제한한다. 물론 도서를 찾게 되면 다시 열람할 수 있도록 설정을 바꾼다. 이는 도서의 페이지 일부가 훼손되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거나 도서가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줄 정도로 오염되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대체 도서를 구입하기 전까지는 해당 책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열람 제한한다.

보통의 경우엔 이러한 이유로 비치되어 있던 도서는 이용자와 이별한다. 하지만 훼손되지도, 분실되지도 않은 도서가 서가에서 떠나는 경우도 있다.



**‘그 책은 왜
도서관에서 사라졌나요?’**

지난 2021년 2월 15일 ‘서연이 시리즈’로 유명한 동화작가가 ‘아동 성추행’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기사화되면서 출판사와 서점은 도서 판매를 중단했고, 화성시 도서관 또한 해당 도서들을 모두 열람 제한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도서들은 파손과 훼손이 아니지만 해당 도서의 저자가 아동 성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저자의 도서들이 아동 독자를 주 대상으로 한 점,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기에 범죄 가해자의 작품이 계속 노출되면 피해자는 피해를 계속 상기하게 되는 점 등을 이유로 공공도서관의 서가에 비치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이 흔한 일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건전한 독서문화의 기반이 되어야 할 지역의 공공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을 해야 하기에 내린 결론이었다.



파손, 부적합 등의 이유로 열람제한 대상인 책들

도서관의 책은 대체로 말이 없다. 서가에서 고요히 있거나 혹은 나쁜 이야기를 담고 이용자를 기다린다. 그러한 기다림이 빛을 발하도록, 사서들은 꼼꼼하게 책을 고르거나, 골라내거나를 반복한다. 어린이와 청소년 등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하며 책을 통한 안전한 일상을 누리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말이다.

글 | 이혜인(동지나래어린이도서관 사서)

확률 이 뭐길래 ?

: 확률(確率)

(명사)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의 정도



…제954회 로또 1등 당첨자는 10명입니다….

“로또 1등 확률^(각주1 한국 로또 6/45: 810만분의 1)이

벼락 맞을 확률^(각주2 미국에서 1년 내 벼락 맞을 확률: 240만분의 1)보다 어렵다는데,

매회 그것도 여러 명씩 나오는 거 보면 참 신기해. 그렇지?”

“그러게. 나는 언제 저 벼락 맞을 확률을 뚫고 1등 당첨되어 보나~”

매주 토요일 밤이면 가족, 친구들과 흔히 나누는 대화 중 하나일 것이다.

왜 행운은 나만 비껴가는 듯한 느낌일까?

당첨자들은 그저 운이 역세게 좋은 사람들일까? 그런가 하면,

“이번 뽑기 확률이 0.1%인데 나오기는 하는 거야?”

“나 한 번에 뽑았는데?”

“와, 운 엄청 좋네? 난 몇 번 시도했는지 셀 수도 없는데.”

“난 아무것도 아냐. 0.000285% 확률 네 번 만에 뽑은 사람도 있는데 뭐~”

“… 로또보다 더 한 거 아니야, 그거?”



장르 불문하고 게임을 하는 사람이라면 위 대화가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꼭 게임을 하지 않더라도 0.1% 확률로 등장하는 상품을 한 번에 뽑았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지 않은가? 확률이라는 게 참 그렇다. 같은 조건에서 누군가는 몇 번 만에 원하는 것을 얻는가 하면, 이론상 이미 등장하고도 남아있어야 할 횡수임에도 얻지 못하기도 한다. 흔히 '1% 확률이라면 100번 시도하면 한 번은 반드시 등장한다.'고 생각할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왜 그럴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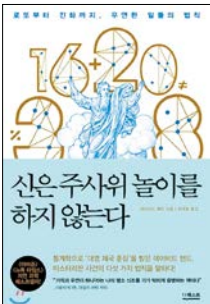
확률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개념이 있다. 주사위는 기억력이 없다. 말 그대로다. 주사위를 던져서 정말 우연하게 6이 10번 연속으로 나왔다고 하자. 11번째 등장하는 눈은 6일까, 아니면 6이 아닌 다른 수일까? 혹시 주사위가 이를 기억하고 다음번에도 6이 등장하게 할까? 아니다. 11번째 눈이 6이 나왔다면 이는 주사위가 앞선 결과를 모두 기억하고 내린 결정이 아니라, 그저 1/6의 확률 가운데 6이 등장한 것 뿐이다.

도서관의 시선

육면체 주사위에서 어떤 눈이 나올 확률은 1/6이다. 이 확률에 따라 육면체 주사위를 30번 던지면 각 눈이 5번씩 등장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앞선 예시대로 6이 10번 연속 등장할 수도 있고, 다른 수가 섞여 등장할 수도 있다. 30이라는 수가 가장 적게 나왔다고 해서 주사위가 '30이 가장 적게 나왔으니 이번에는 30이 나타나게 하겠어!'라고 생각하여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듣고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의외로 이러한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주아주 많다. 훌쩍 게임을 하는데 연속으로 홀이 등장했다. '홀이 5연속이라... 다음에는 짝이 나오겠네!'라고 생각하여 큰 금액을 걸었다. 과연 이 사람은 그의 바람대로 거액을 뺏을까?

앞서 홀이 5연속 등장한 것이 여섯 번째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매회 홀/짝이 등장한 확률은 1/20이다. 여섯 번째 결과가 짝이 나오든 홀이 나오든 그것은 1/2확률이지, 앞선 5회의 결과에 따라 확률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1, 2, 3, 4, 5, 6회 모두 각각의 사건, 즉 독립사건으로 각 사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느 누구도 도박에 빠지지 않을 것 같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이러한 인간심리를 「도박사의 오류」라고 부른다.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일련의 사건에서 상관관계를 찾아내려 하는 사고의 오류를 뜻한다. 아주 쉽게 '이만큼이나 잃었으니 다



음 판에는 반드시 딸거야.'라는 식의 논리다. 앞에서 이만큼이나 잃은 판과 다음 판은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도 말이다. 이러한 인간심리는 수많은 도박꾼들의 돈을 모아갔으며, 그 돈은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이들의 배를 불렸을 것이다.

그렇다면 확률은 단순히 운일까? 우연의 연속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이 누리는 특혜일까? 그렇지 않다. 확률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이론을 정립한 수학의 한 분야이다. 라플라스, 카르다노, 파스칼, 페르마 등 고전적 확률론을 제시한 이들부터 주관적 확률론을 제창한 케인즈, 수학적으로 정의된 공리적 확률을 제시한 안드레이 콜모고로프가 확률을 수학으로 정의한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명하자면 더더욱 어려운 이론이라 책을 추천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최근 게이머들 사이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다. 짧게 요약하자면, 상품을 획득하는 조건 공개 없이, 최고 등급 상품이 없었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한 것이다. 위 사건은 확률의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확률은 '일정한 조건 아래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의 정도'인데 전자는 조건이 일정하지 않았고, 후자는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었다. 이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다수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확률이라는 단어가 부정확하게 쓰인 일례로 볼 수 있겠다.



확률은 주어진 조건만 같다면 누구에게나 공정한 것이다. 확률은 멀리서 보면 운이고 우연 같지만 논리와 수학을 바탕으로 한다. 일상의 모든 확률을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겠으나, 운과 우연으로 결합한 행운의 상징처럼 여기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화성 속 공원 산책

: 화성시의 걷기 좋은 공원을 소개합니다.



동탄센트럴파크

동탄 센트럴파크는 동탄1신도시의 중심 공원이라 할 수 있다. 주변에 상가와 메타폴리스 등 아파트를 접하고 있어서 시민의 근린공원 역할을 한다.

공원 내에는 테니스, 클라이밍, 크로켓, 축구, 캐치볼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이 있어 저녁이면 가벼운 차림으로 운동을 하러 나온 사람들이 많다. 분수나 연못이 있는 광장에서는 삼삼오오 모여 앉아 달콤한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주말이면 미니콘서트나 중고장터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가 열려 생동감 있는 분위기의 멋진 공원으로 변신한다. (코로나로 현재는 열리지 않고 있는 점 참고)

또한, 주변에 맛집, 카페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 식사하고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데이트 코스로 인기가 많다. 바쁜 일상을 마무리하며 산책하기 좋은 장소로 손색이 없다.

소개 | 최보영(봉담도서관 사서)
위치_화성시 동탄공원로2길 22





다람산공원

다람산 공원 주 진입로에 들어서면 왼쪽에 어린 이 수영장과 놀이터, 오른쪽에는 진안도서관이 마주 보고 있다. 조금 더 걸어가면 인공폭포가 내리치는 벽천과 넓은 중심광장이 나온다. 이곳이 주 무대가 되어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봄부터 가을까지 매달 1회 '다람산 어린이 마을 행사'가 진행되는데 마을장터, 세계 마을 놀이터, 공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여름이 시작되면 수영장에서 물놀이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자, 이제 마음껏 즐겨 보았으니 체력도 길러보는 건 어떨까. 산책길을 따라 걷다 보면 공원 안쪽에 다양한 체육시설이 보인다. 운동장부터 족구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게이트볼장까지 격렬한 운동이 부담스럽다면 지압보도와 가볍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정성스럽게 관리된 나무와 꽃 내음을 맡으며 천천히 걸어서 전망대로 올라가면 작은 정자가 있다. 뷰 맛집까지는 아니지만 높은 곳에서 공원 전체와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하루빨리 세계적인 감염병 유행이 종식되어 새 단장을 끝내고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수영장에서 들리는 즐거운 비명 소리, 게이트볼장에서 나던 어르신들의 환호성, 작년에는 개최하지 못한 다람산 어린이 마을 행사로 시끌벅적한 공원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소개 | 최유진
 (동탄북합문화센터도서관 사서)
 위치_ 화성시 병점중앙로 229

도서관의 시선



봉담호수공원

봉담호수공원은 자그마한 호수를 품고 있는 공원으로, 면적은 19,282㎡이고 2007년도에 조성되었다.

공원은 한 바퀴를 돌면 약 20분 정도 소요되는 도심 속 작은 힐링 장소이다. 실개천, 수변데크, 화장실, 막구조파고라, 벽천분수, 목교, 황토길 산책로, 부력 분수 등의 시설이 있다. 계단식으로 만들어진 휴식 공간과 무대도 설치되어 있어서 코로나19 이전에는 다양한 공연을 볼 수도 있었다. 또 어린이 놀이터에서는 여름철 아이들에게 물놀이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봉담 호수공원은 사계절 부담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봄에는 벚꽃의 화려함을 느낄 수 있고, 여름에는 호수의 아름다운 연꽃이 유명하다.

가을과 겨울에는 또 다른 분위기로 가볍게 걷기 좋은 곳이다.

문화, 놀이, 운동을 부담 없이 함께 즐길 수 있고 사계절 아름다운 풍경으로 마음을 정화 할 수 있는 곳 봉담 호수 공원에서의 하루를 추천한다.

소개 | 최미선(동지나래어린이도서관 사서)
위치_화성시 봉담읍 상리 2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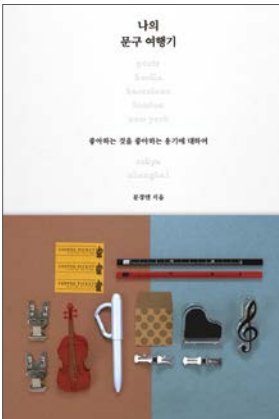
사서의 북컬렉션

: 사서의 시선으로 다양한 주제의 책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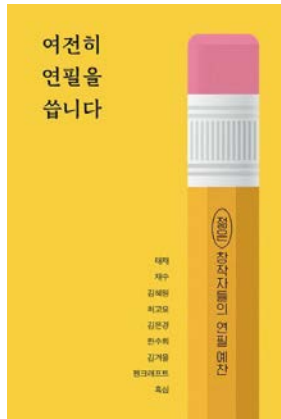
책으로 만나는 문구

문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눈여겨 볼만한 책이다. 좋은 문구를 만나는 기쁨이란 평범한 하루를 아끼자기한 즐거움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닐까. 자신의 취향을 소중하게 여기고 탐구하는 문구인의 책을 만나보자!

소개 | 최보영(봉담도서관 사서)



나의 문구여행기



여전히 연필을 씁니다



아무튼, 문구

사서의 북컬렉션

: 사서의 시선으로 다양한 주제의 책을 소개합니다.

무대에 오른 소설들

2021년 무대에 올라올 예정인 공연들의 원작들을 골라보았다. 뮤지컬 〈그레이트 코멧〉은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2편 5부를 각색한 것으로 5월 말까지 공연한다. 박상영 작가의 소설은 동명의 연극으로 4월에 공연되며, 박지리 작가의 『다원영의 악의 기원』 또한 10월 재공연 된다. 원작의 내용이 무대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비교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소개 | 최유진(동탄북합문화센터도서관 사서)



전쟁과 평화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다원영의 악의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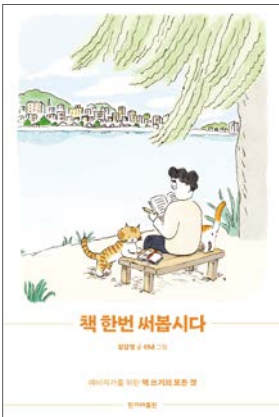
사서의 북컬렉션

: 사서의 시선으로 다양한 주제의 책을 소개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책 쓰기

인생의 버킷리스트로 '책 쓰기'를 꼽아놓았지만, 빈 종이만 보면 생기는 막막함에 서두(書頭)부터 막히는 당신에게 권한다.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책을 쓰면 되는지 먼저 쓴 작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막연하게만 느껴지던 책 쓰기에 한 발짝 다가갈 보길 바란다.

소개 | 최지연(도서관독서문화진흥팀 사서)



책 한번 써봅시다



책 쓰는 책



오늘부터 내 책 쓰기 어때요?

Volume 45_SPRING 2021



46 팟캐스트 북새통 시즌2

당신을 위로하는 작은 쉼표, 도서관주간 행사

47 주간북레터 구독이벤트

남양도서관 초등교과꾸러미

서관의 뉴스



화성시 도서관 팟캐스트 복새통 시즌2 새로운 시작

도서관보다 더 가까운 도서관, 화성시 도서관 팟캐스트 복새통에 눌러주세요. 사서와 시민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책을 읽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대화를 통해 우리의 독서를 더욱 설레고 재미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시즌2의 주제는 '현실이 된 미래, 과학으로 세상 읽기'입니다.

네이버 오디오클립, 팟빵에서 '복새통'을 검색해주세요.



'당신을 위로하는 작은 싹표, 도서관' 제 57회 도서관주간 기념 행사 개최

제57회 도서관주간을 맞아 4월 동안 도서관에서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도서관을 통해 지루한 '집콕' 생활이 아닌 다채로운 일상을 누리고, 독서를 통한 여유와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작가강연회, 공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여전히 안정적이지 않은 코로나 상황으로 사업은 비대면 방식으로 안전하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은 도서관별로 다르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화성시 도서관 주간 북레터 구독 이벤트

매주 화요일, 사회적 이슈 등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도서를 독서전문가 한미화, 정은숙 작가가 추천해 드립니다.

주간북레터를 구독하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하여 20분께 소정의 도서관 기념품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구독 이벤트 기간: 4.12.(월)~4.30.(금)

담청자 발표: 5.7.(금) 예정

필진소개 정은숙: 마음산책 대표, 작가 / 저서 『스무 해의 풀썩』 외 다수
한미화: 칼럼니스트 / 저서 『아홉 살 독서수업』 외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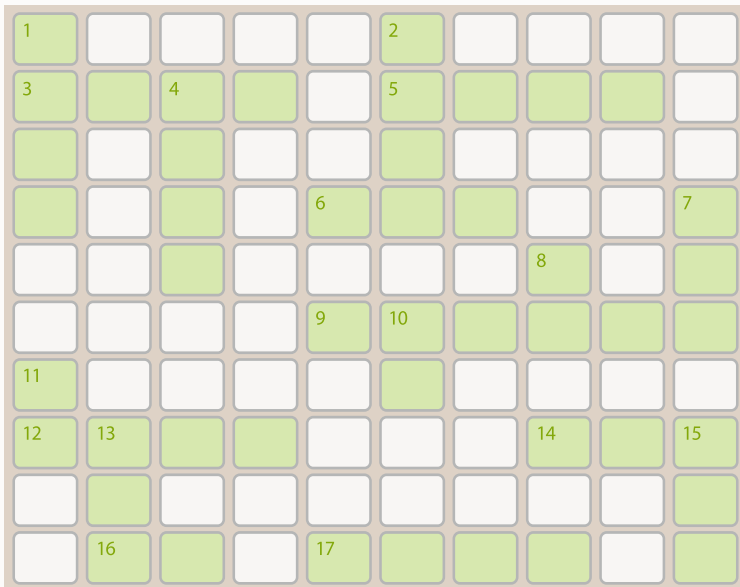
온라인 수업으로 아쉬웠던 교과학습, 남양도서관 초등교과꾸러미로 해결하세요

4월 6일부터 초등교과과정 연계 도서와 필독서를 선정하여 초등교과꾸러미 대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초등교과꾸러미는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수록된 필독서나 각 기관에서 추천하는 학년별, 교과별 추천 도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대출 방법**
1. 어린이자료실 내 대출 목록과 홈페이지에 게시된 목록을 확인하고, 초등교과꾸러미 대출 현황 알림판의 대출 가능한 꾸러미 번호를 어린이자료실 데스크에 제시
 2. 1책 1꾸러미 14일 대출 가능하며, 반납연기, 예약, 상호대차 불가
- 유의사항**
1. 초등학교 1~3학년 대상(2012~2014년생) 대출 가능
 2. 꾸러미는 가방, 교과연계도서 5권, 안내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인 대출 / 반납기의 사용은 불가

가로세로 낱말퀴즈

화성시 도서관의 특화 주제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낱말퀴즈입니다.
이번 호는 동지나래어린이도서관의 특화 주제인 <역사>관련 퀴즈입니다.



가로

- 3 친아버지 영조의 명령으로 27세 때 뒤주에 갇혀 죽음을 맞이한 비운의 세자
- 5 삼국시대 중기 신라의 승려, 해골물 일화로 유명하며 고대 한국 불교계의 고승으로 신라십성 중 한 명
- 6 조선 제1대 왕인 '태조(太祖)'의 본명
- 9 조선 태조로부터 철종에 이르기까지 25대 472년간 역사를 연월일 순서에 따라 편년체로 기록한 책
- 12 관례, 혼례, 상례, 제례를 아울러 이르는 말
- 14 조선시대 조선 국왕의 명의로 일본의 막부장군에게 보낸 공식적인 외교사절
- 16 조선시대 왕실에서 거행된 여러가지 의례의 전모를 소상하게 기록한 서책
- 17 흰 옷을 입고 군대를 따라 전쟁터로 나간다는 뜻, 계급이나 권한이 없는 평민 신분으로 전선으로 뛰어드는 것을 말한다.

세로

- 1 1689년(숙종 15년) 남인이 희빈 장씨의 소생인 원자 정호세자 책봉 문제로 서인을 몰아내고 재 집권한 일
- 2 1796년 정조가 그의 아버지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면서 축조한 성으로 거중기, 녹로 등 신기재를 사용해 만들었다.
- 4 조선왕조에서 가장 칭송 받는 군주 중 한 명으로, 한글을 창제하고 장영실과 같은 뛰어난 신하에게 물시계, 앙부일구, 혼천의 등 여러 과학기구를 발명토록 하는 큰 업적을 남겼다.
- 7 서애 류성룡이 임진왜란 발발 당시인 1592년부터 1598년까지의 전황들을 기록한 수기
- 8 조선의 제8대 왕. 계유정난을 일으켜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인물
- 10 조선의 제14대 왕. 재위기간 중 임진왜란이 발발하였다.
- 11 개인의 시조가 난 곳 또는 성의 출자지
- 13 별자리의 각도를 측정하는 기계로, 천체의 위치를 관측하는 데 사용된다. 기원 전 2세기 무렵, 중국에서 처음 만든 이래 천문 관측의 기본 기구가 되었다.
- 15 조선 단종 복위를 꾀하다 사전에 발각되어 처형당한 성삼문, 박팽년, 이개, 허위지, 유성원, 유응부를 일컫는다.

독자 후기 코너

내가 보고 싶은 풍경은...

이번호 「풍경」은 어떠셨나요?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조금 더 보기 좋은 「풍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거나 스캔한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분기별(연 4회) 10분을 추첨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도서관 이용안내

㉔ 이용시간

구분	평일	주말
종합자료실	09:00 ~ 22:00	09:00 ~ 18:00
어린이자료실 / 전자정보실	09:00 ~ 18:00	
열람실	09:00 ~ 22:00	

㉕ 어린이도서관(동지나라/두빛나라)

구분	평일	주말
자료실 / 전자정보실	09:00 ~ 18:00	09:00 ~ 18:00

㉖ 공립 작은도서관

구분	주말
샘내, 비봉, 가야행복마루	화 ~ 토 / 09:00 ~ 18:00
양감, 마도, 팔탄, 봉담커퍼앤북	월 ~ 금 / 09:00 ~ 18:00

㉗ 휴관일 안내

구분	매주 금요일 휴관	매주 월요일 휴관
정기 휴관	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 병점도서관, 정남도서관, 봉담도서관, 송산도서관, 동지나라어린이도서관, 동탄목동이음터도서관	동탄북합문화센터도서관, 태안도서관, 진안도서관, 남양도서관, 삼괴도서관, 두빛나라어린이도서관, 동탄다원이음터도서관, 송린이음터도서관

임시휴관 : 법정공휴일 / 창립기념일, 장서점검 등 특별한 사유로 기타 관장이 정하는 날

★ 본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응하는 기준입니다.

㉘ 회원가입

구분	내용
대상	•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경기도 소재 재직자 및 재학생
구비서류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발행 3개월내) •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발행 1개월내)
신청방법	• 화성시 도서관 홈페이지 회원가입(휴대폰 인증 또는 민간 I-PIN 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후 가입 가능)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본인확인 후 동의 후 가입 가능 • 가까운 화성시 도서관 방문(구비서류 지참)하여 회원카드 발급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회원증 발급

㉙ 회원가입

- 책이음(통합회원)서비스 가입 회원일 경우, 화성시 도서관에서 인증 절차 후 바로대출가능
- 책이음 홈페이지 <http://book.nl.go.kr>

도서관 이용안내

📖 회원증 재발급

- 회원증 분실시 본인이 신분증, 학생증 지참하여 도서관 방문
- 재발급시 도서 대출 7일 후부터 가능

📖 도서대출

구분	내용
대출	• 1인 7권 14일
연장	• 홈페이지, 리브로피아에서 1회 가능
연체규정	• 연체일 수만큼 대출 정지 • 90일 초과 장기연체 시 반납일로부터 6개월 대출 정지
도서분실	• 동일도서 구입 후 반납 • 분실도서의 품질 및 절판 시 지정 도서로 대체 변상
타관반납	• 가까운 도서관에서 타관 반납 가능

전자자료 이용 안내

전자자료

- 운영내용 PC,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전자자료 이용 (e-book, 오디오북, 음악)
- 이용대상 화성시 도서관 홈페이지 회원
- 이용방법 • PC :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 전자자료
• 스마트폰, 모바일기기 : 전자도서관 어플 설치 → 도서관 검색 및 설정 → 로그인 후 전자책/오디오북 대출
• 대출권수 및 대출기간 : 1인당 5권 14일

학술논문원문(DBpia)서비스

- 운영내용 홈페이지를 통한 학술논문원문 무료 열람
- 운영대상 화성시 도서관 회원가입자
- 이용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 전자자료 → 학술논문원문 바로가기

국회 논문 열람

- 운영내용 도서관 내 지정된 PC에서 국회 논문 원문 무료 열람
- 운영대상 화성시립도서관 회원가입자
- 이용방법 도서관 방문 → 지정 PC에서 논문 열람

기타 서비스 안내

희망도서 신청

- 운영내용 월 2회 이용자 자료 구입 및 신청자 우선 대출 서비스
1인당 3권(권당 50,000원 이하)가능
- 운영대상 화성시립도서관 관외대출회원
- 신청방법 홈페이지, 리브로피아에서 신청

상호대차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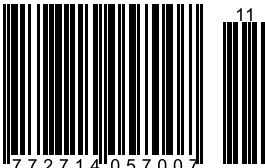
- 운영내용 화성시 관내 소장도서를 신청, 가까운 도서관에서 대출
- 운영대상 화성시립도서관 관외대출회원
- 이용방법 1인당 3권
- 신청방법 홈페이지, 리브로피아에서 신청

모바일 서비스

- 카카오톡 채널 '화성시 도서관' 채널 검색 후 추가
- 인스타그램 @hwaseonglib
- 페이스북 @hwaseonglib1
- 블로그 blog.naver.com/hwaseonglib
- 유튜브 화성시립도서관
- 홈페이지 www.hscitylib.or.kr

HWASEONG CITY
CULTURAL FOUNDATION

화성시문화재단



9 772714 057007

ISSN 2714-0571